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통권 181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6년 6월 25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 표지 제호 신영복
편집장 이보람 | 편집위원 김보영 김솔지 유한별 이승민 최의덕
디자인·인쇄 디자인글콜 051-636-1215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우 48901)
전화 051-790-7400 | 전송 051-790-7410
누리집 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카카오TV 공식채널

민주공원

f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f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1987년 6월민주항쟁을 계기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9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비록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12·3 불법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이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불균형의 심화와 이에 따른 정치제도의 한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대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181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주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주권자인 민주시민이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표지 이야기

올해 발행되는 소식지는 민주공원의 사계(四季)를 담고자 합니다. 181호는 개관을 준비 중인 민주주의기록관의 여름 풍경을 담았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부산 서구 망양로 일대 산복도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너머에는 부산항과 남향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의 풍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품은 민주주의기록관에는 이번 호에서 소개한 노동자대투쟁 관련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민주주의 기록이 보관·보존되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기증·기탁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림_김수진

목 차

- 마루누리**
- 4 다시 살펴보는 헌법개정안의 의의와 전망
_ 곽한영
- 민주공원**
- 8 4·19혁명 66주년, 4·19혁명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 10 민주야, 自主 자주 만나자!
- 14 민중미술가 열전 <정하수>
_ 이봉미
- 18 기억을 잇는 걸음
- 20 침묵을 깨고 “노동해방”을 외치다
_ 김민화
- 늘빛드레**
- 22 어용노조 같아왔고 민주노조 건설, 정경식 열사
_ 남영란
- 더: 나은**
- 24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한 거대한 외침과 그 계승
_ 김장호
- 28 30년 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운동, 이제는 끝내자!
_ 이창훈
- 32 도시에서 되살아난 단오, 백양마을 사람들의 품앗이 축제
_ 이보람
- 회원과 함께**
- 34 민주공원과 더 가까이, 더 자주
_ 유한별
- 민주사랑방**
- 36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 외
- 민주알림방**
- 38 함께 배우는 시민연대 투어
- 39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온 소식
- 40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4



8



12



13



28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2025. 9. 10, 부산시의회)

다시 살펴보는 헌법개정안의 의의와 전망

곽한영 • 부산대학교 교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헌법개정안

지난 5월 7일, 국회에는 18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됐다.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의 의결이 필요한데 총 300석 가운데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석의 공석이 있어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178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고, 결국 개헌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었다.

1948년 처음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변화해 왔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만들어져 39년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특히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런 헌정 위협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이번 개헌 논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아쉽게 부결된 이번 개헌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해 보기로 하자.

헌법개정안의 세 가지 쟁점

이번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계엄 요건의 강화였다. 2024년 12월 3일의 불법계엄은 국회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특히 이번처럼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개회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반복될 수 없도록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해제를 지연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려 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현행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 향유를 위해 경제를 비롯하여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주거, 교통 등 포괄적인 지역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헌법 전문의 성격에 관한 다소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헌법 전문의 의의와 역사적 정통성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오는 짧은 글이다. 책의 서문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의 본문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전문이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는 헌법을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와 지향점, 정체성과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 전문이라서 헌법 전문은 규범적 효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력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개정불가조항'으로 보기도 한다. 헌법 전문의 문장을 전혀 손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 전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국가적 가치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면 그건 헌법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예 다른 나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폐제'로 봐야 하므로 근본적인 지향점을 바꾸는 개정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국가적 가치지향을 보여주는 헌법 전문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이다. 즉, 우리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3·1운동에서 4·19로 이어지고 있다는 선언인데 4·19가 이미 1960년, 그러니까 66년 전의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 역사의 민주적 정통성을 잇는 사건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적인 동의를 가능한 대표적인 민주주의 운동으로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려 한 것이었다. 이는 부산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원지 중 하나로 위상을 높일 기회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 시도가 무산된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국민투표의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일단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서로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개헌이라는 상자를 여는 순간 다양한 주장과 이해관계가 중첩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200석의 개헌선을 넘지 않는 한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렵고, 또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번 개헌 시도는 거대 여당의 존재와 6월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투표 병행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보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2년 김영삼 정부의 개헌 논의 이래 일곱 차례나 시도된 개헌 논의들처럼 이번 시도 역시 무산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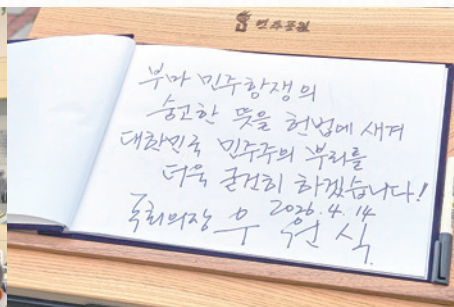
개헌 논의의 미래

하지만 이 시점에서 왜 이번을 포함해서 여덟 차례가 되는 개헌 시도들이 좌절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을 제외하면 1948년부터 1987년까지 39년간 9개나 되는 헌법이 명멸했다. 헌법 하나의 지속 기간이 평균 4.3년에 불과해서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짧았으니 헌법의 안정성, 규범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87년 헌법은 현재까지 39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우리나라의 번영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는 87년 6월민주항쟁이라는 강력한 정당성의 기반 위에 세워진 헌법이기 가능한 일이었고 향후 이에 필적할 만한 국민적 합의의 또 다른 계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국민적 합의 없이 단지 여야의 타협이나 거대 정당의 힘만으로 추진되는 개헌은 반드시 역풍에 부딪치고 이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다시 바꿀 수 있는 헌법으로 인식되면서 헌법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2026. 4. 14.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민주열사 참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긴 방명록
(2026. 4. 14. 민주공원 넋기림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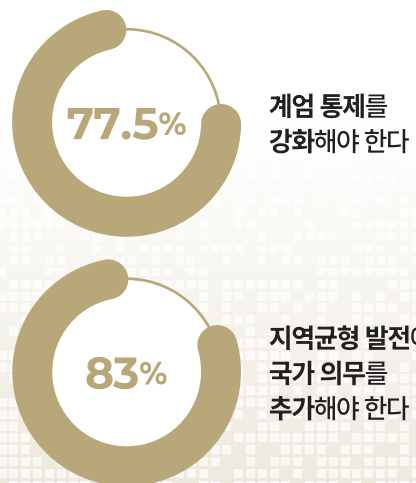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촉구 결의대회(2026. 4. 28. 국회 본관 앞)

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여덟 차례의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개헌의 근거로 현행 헌법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문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헌법이 자주 바뀌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일본은 전후인 1947년 성립된 평화 헌법이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도 수정조항이 덧붙긴 했지만, 헌법 본문은 1787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4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여 기존 헌법의 체계 내에서 세부적인 해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개헌 시도는 앞선 일곱 차례의 실패와 눈에 띄게 다른 측면이 하나 있었다. 전면적인 헌법개정 작업이 가져올 문제점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행 헌법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일부 조항들을 핀포인트로 수정하여 개헌의 가능성을 높여 한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본문을 그대로 두는 대신 약 9년 주기로 수정 헌법 조항을 추가하여 부분적이고 세밀한 변화를 꾀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국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개헌과 관련하여 계엄 통제 강화에는 77.5%, 지역균형 발전 국가 의무 추가에는 83%나 되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개헌 시도는 아쉽게 무산되었으나 6월 지방선거 이후 해당 조항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 개헌 논의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때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내용은 당연히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어질 개헌 논의에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4·19혁명 66주년, 4·19혁명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으로 이뤄낸 4·19혁명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매년 4월 18일 민주공원 들머리에 위치한 4월 민주혁명 희생자 영령봉안소에서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19를 그리다’를 주제로 3주간 4·19혁명 해설과 LED 전등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브니엘 예고 학생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4월 18일 추모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함께 장기남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지부장, 광근수 4·19민주혁명회 부산지부장,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 부산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일 당일에는 부산시가 4월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에서 공식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을 앞두고 부산시설공단은 영령봉안소에 모셔진 민주열사 영정 46위 중,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33위의 영정사진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자 현 정부 들어 첫 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록하며 예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187명이 지난 4월 3일 공동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는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을 ‘4·19혁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이번 5월 국회 본회의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이는 4·19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헌법에 더욱 분명히 새기고자 한 뜻을 담고 있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우리 헌정사 최초이자 유일한 혁명인 4·19혁명의 정신과 위상을 앞으로도 더욱 굳건히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야

自主

자주 만나자!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문화제

사진 : 강민수



- 1- 청소년 역사 공부 모임에서 만난 평화통일센터 하나 소속 <유니밴드>
- 2-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평화로운 통일 세상을 노래하는 <용감한 언니들>
- 3- 대천마을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냥 좋아서, 밴드>
- 4- 자연과 사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노나밴드>
- 5- 과거의 민중가요를 재해석하며 노래하는 <노래하자 모디라>
- 6-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람과 자연을 잇는 음악을 만드는 <아이씨밴드>



올해 오월에서 유월로 이어지는 부산 기념행사 슬로건은 “민주야 自主 자주 만나자”입니다.
민주주의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고 손을 맞잡는 친숙한 가치라는 의미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다극적 국제질서로 급격히 재편되는 흐름에서
자주의 기반 없이는 민주적 가치 또한 실현될 수 없기에 더욱 연대하고 소통하자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제39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시민한마당

사진 : 최우창



1~2 - 민주주의 체험부스
3 - 시민참여 프로그램 '큰기 체험'
4~6 - 기념식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문화제

오월의 정신, 오월의 노래

5월 16일(토) 오후, 민주공원 큰방에서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오월의 정신'에 걸맞은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된 시민참여형 기념행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부산 시민 6개 팀이 창작곡과 기성곡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며 오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뜻깊게 마무리됐다.

이행봉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은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계속되는 전쟁과 강대국들의 자



본주의적 이해관계 다툼 속에서도 민주시민의 삶과 권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문화제에서 '오월의 정신'으로 함께 불렀던 '오월의 노래'들이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시민들 간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노래로 남기를 바란다.





제39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시민한마당

6월의 함성을 오늘의 연대로!

6월 10일(수) 송상현광장에서 <제39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시민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예총,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참여해 다양한 민주주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크기 체험과 소원목 심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다. 기념식은 6월민주항쟁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김경덕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행봉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6월민주항쟁이 이뤄낸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보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지역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가 정치와 제도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주적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를 단단히 세워 나가고, 시민들이 더욱 굳게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을 조장하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은 6월민주항쟁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날 함께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는 바로 그 힘이 될 것이다.

2026 민주화운동 주제전시

민중미술가 열전
<정하수>

이봉미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전시·학예

민주공원은 매년 민중미술전을 개최해 왔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이곳의 성격상, 민중미술의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기록하는 일은 매년의 과제로 이어져 왔다. 올해 전시 작가인 정하수와 의 만남은 공동 기획자인 최성규 선생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정하수 작가는 부산에서 태어나 1980년대 대구 민

중미술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작가로, 제도권 미술교육 밖에서 노동과 삶의 경험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구축해 왔다. 그의 작업은 노동의 경험과 몸의 감각이 어떻게 이미지로 이어졌는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한 작가의 궤적 안에서 1970~90년대 민중미술의 다양한 층위와 시대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이다.



정하수(1951~)



개인전
1996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정하수 그림 이야기》전, 예술마당 송, 대구
2018 《2018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전, 아트콜럼 삼덕, 대구

노동자 도서관(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정하수 "문화전"
1988 《우리들의 자리매김》전, 노동자 도서관, 대구
《정하수 문화전》, 호성여대, 대구



1970년대 후반 한국미술은 사회 현실과의 관계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1979년 결성된 '현실과 발언'과 광주의 '광주자유미술인협회' 등의 활동은 이후 민중미술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1980년대 초 '두령' 등 현장 중심의 실천이 등장하면서 미술은 전시장 밖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후 민중미술은 현실을 비판적

으로 바라보는 미술적 흐름과 노동·민주화운동의 현장 속에서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는 흐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다.

정하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노동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상패와 배지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과 조각의 기초를 익혔고, 이후 서울의 벽지 회사에서는 엠보싱 틀을 제작하며 손의 감각을 확장했다. 17세에 서울로 올라간 그는 화랑과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미술을 익혔다. 직공으로 일하며 부산과 서울을 오간 경험은 이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바탕이 되었고, 노동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감각은 그의 작업 전반에 깊게 스며들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주제로 삼았다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시간과 몸의 감각 자체가 그의 조형 언어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1970년대 작업은 형성기의 시간에 가깝다.¹ 이 시기 작업은 추상화를 비롯해 노동과 도시의 거리에서 출발한 시도들로, ‘인간’, ‘노동’, ‘가족’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제도권 밖에서 형성된 감각이 이후 작업 전체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전시된 작품은 이후 그의 작업 방향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는 사회 현실과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였다. 대구에 정착한 그는 작업실이자 화실이었던 ‘투명화실’을 중심으로 작가와 학생, 문화운동가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판화 자료와 영상이 공유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화운동의 장이었다.

1- 초기 작품(1970년대, 나무에 유채).
왼쪽부터 <토담길>, <어촌에서>, <사물놀이>



1



2



그는 <회화 9인전>(1983), <인간전>(1984), <지금 우리는...>(1985) 등에 참여하며 지역 민중미술의 흐름 속에서 활동했고, 판화 제작 등을 통해 미술의 실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의 판화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판화는 복제와 배포를 할 수 있는 매체²였고, 그의 작업은 전시장 벽면에 머무르지 않은 채 집회와 강연, 소식지와 포스터, 유인물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과 문화운동의 현장 속으로 이동했다. 이미지가 삶의 현장 안에서 사용되고 공유되었다는 점은 당시 민중미술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다.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하며 그는 공동 창작 작업을 이끌었고, 같은 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의 작업은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의 실천으로 놓이게 되었다.

2- 어머니의 손국수, 1985, 종이에 목판, 32×52

1989년 이후 그는 화단을 떠나 경북 청도로 내려가 작업실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작업은 묵탄, 콘테, 파스텔, 연필, 크레파스 등 다양한 재료를 넘나들며 민중의 삶과 노동의 감각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특히 **알루미늄 강통을 펼쳐 만든 철판 위에 강필로 새긴 작업³**은 노동 현장에서 익힌 손의 감각과 삶의 시간이 화면 위에 직접 남겨진 결과처럼 느껴졌다. 이 작업은 단순히 재료 실험이라기보다, 노동의 경험이 조형 언어로 지속된 흔적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2006년 첫 개인전, 2018년 개인전으로 이어지는 작업의 흐름은 시대의 격변 이후에도 그의 미술이 멈추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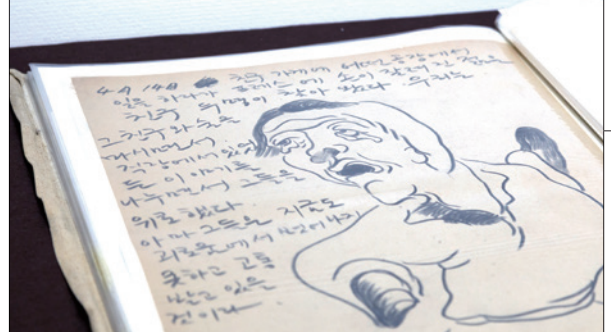
3— 붓꽃, 2023, 알루미늄 캔에 골필, 13×25

4—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작가의 작업과 삶의 흔적이 담긴 스크랩북

3



4



민중미술가 열전

2026.
4.14.—5.31.

2026 민주화운동 주계전시

정하수
Jung HaSu

민주공원에서 그의 작업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민주화운동 시기의 미술을 회고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제도화된 질서 바깥에서 노동과 연대의 감각이 어떻게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정하수 작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실천이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읽어낼 수 있을지를 함께 질문하고자 한다.

- 사진 : 권하형
- 포스터 디자인 : 아이디얼

부산민주역사길해설사 서울 역사탐방

기억을
잇는

걸음



민주공원은 부산민주역사길해설사(이하 '해설사')를 양성하여 지역 시민과 어린이·청소년이 역사와 민주항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4대 민주항쟁을 교육하고, 관련 공간을 탐방하며 해설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1명의 해설사가 <부산민주역사길 탐방>과 <찾아가는 부산민주역사교실>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 모임과 타 지역 학습,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봄, 항일독립운동과 6월민주항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교육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해설사들은 서대문형무소, 식민지역사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관 등을 둘러보았으며, 그 소감을 나눕니다.

이번 역사탐방은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여서 참 설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해설을 즐겁게 들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는 동시대를 살면서 일부는 부귀를 좇고, 일부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엇갈린 삶을 보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유독 마음 아팠던 곳은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상설전시실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M2)이었다. 해당 공간은 사운드스케이프 기법을 도입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눈이 가려진 채 잡혀왔을 민주열사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박종철 열사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 때에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군사정권 시절 감금과 고문으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_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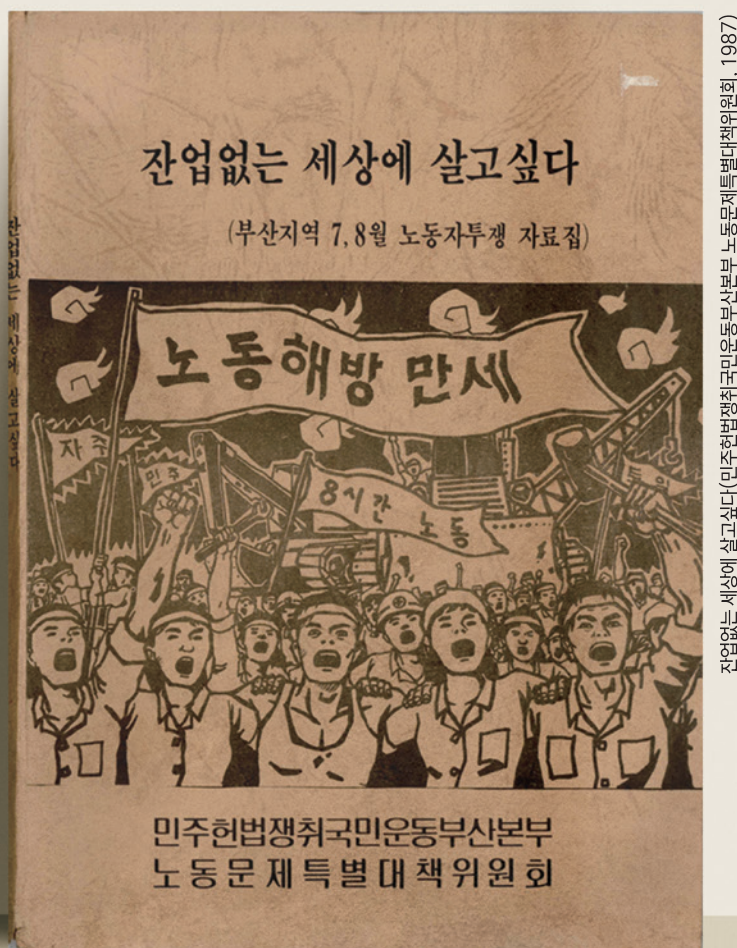
올해 봄, 기다려온 서울 역사탐방길에 올랐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동료들과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와 간식은 답사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옛 서울역사는 순식간에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경복궁 앞을 지날 때 한복을 차려입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고, 이어 방문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최첨단 전시 시설을 보며 부산의 전시관들과 비교되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가슴 깊이 남은 곳은 남영동 대공분실(現민주화운동기념관)이었다. 그곳에서 느낀 아픈 몽클함과 분노, 그리고 민주열사들이 겪어야 했던 국가 폭력 앞에서의 공포와 투쟁, 희생을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졌는지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_ 박차남

서대문형무소와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은 폭력의 역사를 온몸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간 곳곳에 스며 있는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피부에 닿는 감각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두 공간을 잇는 동선 속에서 서로 다른 시대의 폭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체감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억압과 침묵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식민지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잊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노력에서 시작해, 뜻에 공감한 시민들의 힘이 모여 지금의 박물관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마주하는 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이 이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날의 걸음은 기억을 이어가는 하나의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무게를 잊지 않고, 해설사로서 기억하고 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_ 이지원



침묵을 깨고 “노동해방”을 외치다

1987년 부산
「잔업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우리는 이대로 있을수 없답니다★

정당에 몰입고 경제를 위하하는 근로자 여러분!
 지금 이대로만 있을 것입니까?
 저절로라도 공황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떤 가슴속에서든 공하고 있음니까?
 평등한 권리를 왜 갖는 것입니까?
 식당, 책가 떨어 받들니까? 만, 이거
 사람다운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또 노조는 노조위원
 거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경제권을
 주십시오. 누가 없습니까?
 한사람을 전제적인 거부에도 관대하면 6백만원 원
 입니다 그 정수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황금의 계보에 나오니까, 나라 귀족의만
 임금도 세 남배에 아저씨 근한 지경에
 처했다. 사람이 얼마나 잘랐습니까?
 또한 각자 각자가 된 '알'입니다.
 양회장은 20원 30원 이상에 올랐고 가치를를 주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동기없는 전업 저수 여러분 우리 모두 단결하여
 열관계를 살아봅시다.

우리들의 요구

1. 어용노조 물리치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노조 위하당 대우를 작전계 인식하라)
 2. 식당, 책가 떨어 받들거나 개밥이라
 개밥회사 개선하라
 3. 월급날의 개월 15일 정도 정하라!
 각자 각자 된 '알'이나
 4. 임금연장 15% 지불하라
 5. 가족수당, 유족수당 만원지급하라 (구분도 포함)
 (여름마다)
 6. 교통비도 안되는 본버스 인상지급하라
 관리자 본버스 전액지급하라
 문면 대하 100% 원복 대우 200% 지급 300%
 7. 수확여광 볼 어음통가 문장으로 실시하라
 (경비 단결관리 포함)
 8. 열리후가 및 월회주가 실시하라
- ... 우리 모두 개선하여 안판답게 살아보자
 ... 중저면 개선되고 흠어져면 그모양 그팔
- 전업 조합원 일동 —

1987년 8월 11일 진양항쟁 노동자들이 배포한 영인본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1987년 여름, 민주화를 향한 6월항쟁의 열기는 곧장 일터로 옮겨붙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요구하며 일어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는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자료집 『잔업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당시 부산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써 내려간 항쟁의 궤적을 오롯이 품고 있다. 특히 남성 중심 중화학 공업 노동운동에 가려졌던 부산 지역 여성·경공업 노동자들의 주체적 실천을 현장감 있게 복원해 준다.

당시 부산은 신발·고무 등 경공업 밀집지였으나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었다. 7월 22일 금정구 구서동의 태광산업에서 투쟁의 신호탄이 울렸다. ‘개밥’이라고 부를 만큼 열악한 식사 등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분노한 1,500여 명의 노

동자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빗속 철야 농성에 앞장섰고, 마침내 상여금 인상과 특근 폐지 등을 쟁취하며 대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불길은 사상구 괘법동의 국제상사로 번졌다. 7월 28일, 환풍기조차 없는 찜통 속에서 독한 본드 냄새와 구타에 시달리던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구사대와 경찰을 동원해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노동자들은 사상성당으로 농성장을 옮겨 16일간 완강히 맞섰다. 비록 강제 해산과 대량 해고를 겪었지만, 꺾이지 않은 연대는 민주노조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빛바랜 갱지 위 ‘잔업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투박한 절규는 우리에게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땀방울과 눈물로 열망했던 ‘잔업 없는 세상’, 즉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에 도달했는가.



어용노조 갈아엎고 민주노조 건설, 정경식 열사

남영란 •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교육위원장



6월항쟁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면, 이어진 7·8·9 노동자대투쟁은 그 민주주의를 삶터와 일터로 확장하려는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솔밭산 열사묘역에서는 정경식 열사를 통해 6월항쟁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꿈꾸었던 노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1959년

- 경남 의창군 진동 출생

1984년

- 5월 9일 대우중공업(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입사

1986년

- 5월 14일 산재사고로 창원병원 입원, 이후 노조활동 시작

1987년

- 2월 26일 대우중공업 최초의 집단행동인 '중식거부투쟁' 참여
- 5월 26일 노동조합 대의원 및 지부장 선거 실시 (회사 측 후보 당선)
- 5월 28일 회사의 선거개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 발생
- 6월 8일 근무 중 폭행 사건 합의 문제로 외출한 뒤 실종 (당시 29세)

1988년

- 3월 2일 창원 불모산 산불 수습 과정에서 유골로 발견

2010년

- 8월 23일 어머니의 23년 투쟁 끝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 9월 7~8일 노동해방열사 정경식 동지 전국노동자장을 엄수하고, 솔밭산 열사묘역 안장

민주노조를 향한 정경식 열사의 투쟁

입사 2년 만에 겪은 산재사고는 정경식 열사에게 민주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한 계기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회사와 정권의 통제를 받는 어용 체제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마저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현실 속에서, 그는 오직 민주노조만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정경식 열사는 1987년 2월 사측과 어용노조의 일방적인 임금동결에 항의하며 대우중공업 최초의 집단행동인 ‘중식거부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민주파 활동가 모임에 참여하며 현장 민주화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같은 해 5월 노동조합 대의원 및 지부장 선거에서는 민주파 후보 당선을 위해 온 힘을 쏟았지만, 사측은 대의원 매수와 선거 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용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정경식 열사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6월 8일 경찰 조사 문제로 외출증을 끊고 공장을 나선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988년 3월, 불모산 산불 수습 과정에서 그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많은 의혹을 외면한 채 사건을 서둘러 자살로 종결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당부와 산 자들의 몫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으로 번져가던 시기, 창원대로 한복판에서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내 아들을 찾아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유골이 발견된 뒤에도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투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회유와 거액의 위로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아들은 노동자들이 물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식의 희생을 개인의 비극을 넘어 노동자의 역사로 기록하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활동에 매진하며 집회와 농성, 구속까지 감내하며 긴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걸친 눈물의 투쟁 끝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아니었지만, 정경식 열사의 죽음에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가 있었음이 인정되자 어머니는 장례를 결정하였습니다.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추모대회에 참석한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보따리장사를 하며 서울까지 다녀야 했고 너무 외로웠다. 그런데 이제는 경식이 그토록 원하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참 좋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경식이 만들고 싶어 했던 민주노조를 부디 잘 지켜달라.”

이 간절한 당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의 존엄을 바로 세우고 일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 그것이 바로 열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잇는 길입니다.

“솔밭산의 ‘늘빛드레’를 일상의 빛으로 만드는 일, 바로 역사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원 참여

솔밭산에 잠든 열사들의 정신을 온전히 기록하고, 노동자 민중의 피어린 투쟁사를 보존하여 내일의 이정표로 세우겠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간섭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이 역사적인 결음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이 되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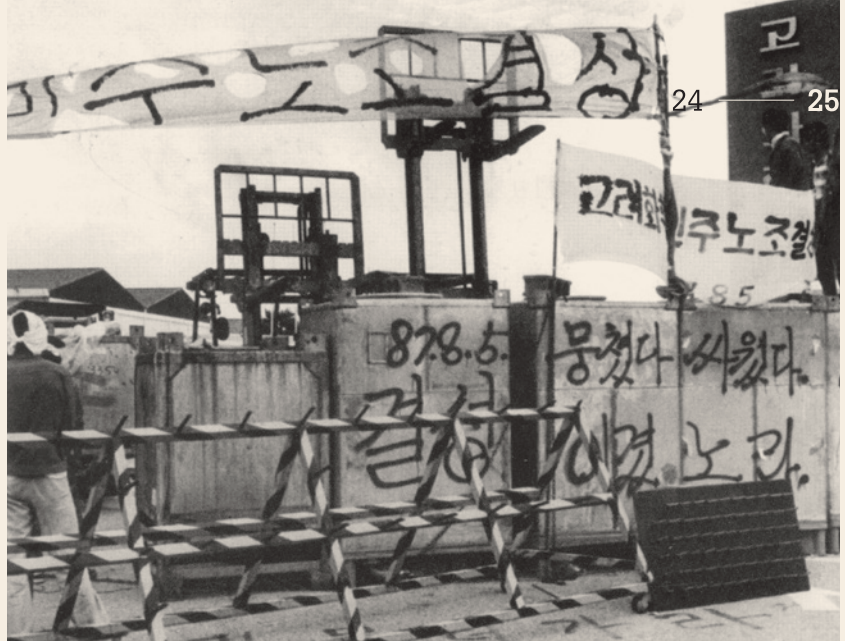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한 거대한 외침과 그 계승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미

김장호 •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고려화학 파업 투쟁 현장
(1987. 8. 5.)



1987년 6월, 대한민국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6월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6월의 뜨거운 열기는 명동성당과 거리의 환호 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 열기는 곧바로 억압받던 공장 담벼락을 넘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이른바 ‘7·8·9 노동자대투쟁’으로 타올랐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일터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요구한 노동자들의 거대한 각성이자, 한국 사회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억압의 사슬을 끊고 역사의 주체로 서다

6월항쟁 이전의 노동자들은 국가의 고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군사정권의 폭압적 노동 통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연대’의 힘을 목도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체제에 순응하는 기계 부품이기를 거부했다. 7월 초 울산 현대엔진에서 타오른 파업의 불씨는 순식간에 부산, 경남을 거쳐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 시기 대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뭉쳤다는 점이다.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어용노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인인 ‘민주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투쟁이 전 사업장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불과 석 달여 만에 3천 건이 넘는 쟁의가 발생했고, 12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두발 자유화, 강제 잔업 철폐, 관리자의 폭언 금지 등 인간다운 대우와 기저에 깔린 일상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다.

철야농성 후 가족들이 가져다준
아침을 먹고 있는 한진콘테이너
노동자들(1987. 8. 8.)



부울경의 연대와 민주노조 진영의 결집

특히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은 중화학공업과 신발, 섬유산업 등 대규모 공단이 밀집해 있어 87년 노동자대투쟁의 거대한 진원지이자 심장부 역할을 수행했다. 울산 지역 대공장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파업과 마산, 창원,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끈질긴 연대 투쟁은 전국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투쟁의 결과로 개별 사업장마다 민주노조가 잇따라 설립되었고, 이는 곧 고립을 넘어 지역 및 업종별 연대회의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굳건한 전국적 연대는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사무전문직 중심의 업종회의 결성과 맞물려 마침내 오늘날 민주노총 건설의 든든한 역사적 토대가 되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가 단순히 시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혁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 서게 된 패거였다.



(왼쪽부터)

공장폐쇄 철회를 서명하고 있는
삼양식품 영남지사 부산공장
농성 노동자들(1987. 8. 14.)

동양고무 정문에 걸린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1987. 8. 19.)



87년의 정신과 부울경 노동역사관 건립의 과제

87년 노동자대투쟁 발발로부터 반세기가 가까워지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그 뜨거웠던 시대의 정신을 호명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오늘날에도 비정규직,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소외와 불평등이 도처에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 흘리며 외쳤던 ‘인간다운 삶’과 ‘평등’, 그리고 ‘연대’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미완의 과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노동역사관 건립사업’은 매우 각별한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부울경 지역은 87년 대투쟁을 비롯해 한국 노동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 들어설 노동역사관은 단지 과거의 투쟁 기록을 박제해 두는 차가운 전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노동자들의 헌신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노동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생생하게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민주주의의 성소’가 될 것이다.

6월항쟁의 함성이 7·8·9월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그 의미가 완성되었듯, 과거의 찬란했던 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웅변하는 역사관 건립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굳건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1987년 뜨거웠던 그 여름,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를 선언했던 노동자들의 숭고한 외침은 부울경 노동역사관을 통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사진 :
『6월항쟁 사진자료집』
(부산지역 유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 발간,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소장)

30년 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운동, 이제는 끝내자!

이창훈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의장

민주유공자법 제정운동은 1997년부터 시작됩니다. 즉 6월항쟁을 거치고,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독립운동이나 호국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하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들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1년 10월 7일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농성장 설치 직후 유가족 회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당시는 국회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2023년 4월 당시 팔십 고령의 유가협 회원들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였다. 사진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지지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

이렇게 시작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몇 차례 열리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본격화됩니다. 국회 앞에서는 유가협 부모님들의 422일간의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15대 국회에서는 ‘민주화 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이 제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입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행 경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가 시작됩니다. 이후로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현재 3기 출범) 활동이 이어지고, 각 국가기관 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활동도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9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사망, 부상, 투옥, 해직 등)되었음을 국가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원래 요구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보다 한 단계 아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던 2024년 5월 28일 드디어 민주유공자법(사망, 상이자 대상)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29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직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6월항쟁 34주년을 맞이하여 시작된 3년간의 국회 앞 일인시위와 천막농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아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어렵겠구나”, “또다시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려야 하는구나!”하며 여기저기서 유가협 부모님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2024년 6월 10일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에는 예전과 달리 부마항쟁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18 유공자처럼 부마항쟁 관련자 예우법을 따로 제정하려 하였는데 하나로 합친 것이죠.

이제는 예전처럼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윤석열도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예전처럼 극렬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3월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5월 30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6·3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본회의가 못 열리더라도 22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 제정 막바지에 이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 제정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님을 비롯한 다수의 유가협 회원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유가협 부모님들의 연령대도 8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라도 살아계실 때 법안이 통과되어 자식의 사회적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국회 3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단원들이 일인시위를 벌이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천막농성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려 1천6백여 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수로만 해도 5년입니다. 더 이상 법 제정을 늦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에서 되살아난 단오, 백양마을 사람들의 품앗이 축제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기록



6월민주항쟁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이 흐름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지방자치의 부활로 이어졌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운동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¹했다. 백양산 아래 부산진구 당감·부암 권역의 백양마을에서도

‘동화랑 놀자 어린이 도서관’, ‘문화공간 백양산’, ‘백양문화모임’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²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단오제는 백양마을 공동체의 대표적인 행사다.

농경사회의 대표적 세시풍속인 단오제가 아파트가 빼곡한 도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마을공동체가 모인 ‘백양마을 사람들’의 정경아 대표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었다.

1— 부산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부산지역 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산지니, 2026), 344쪽.

2— 부산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부산지역 공동체운동의 원형을 찾아서』(산지니, 2026), 405~410쪽.

___ 마을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마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백양산 달빛 산책’에 함께 가자는 편지를 붙였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하나둘 만났습니다. 이후 책 모임, 마을 신문 제작, 우쿨렐레 수업 등으로 활동이 확장됐어요. 각자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여행 다니며 아파트 안에서 사람 중심의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___ 단오제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백양산 선암사에 산아래마을협동조합에서 가꾸는 텃밭이 있었어요. 백양산을 오르내리며 텃밭에 관심 가지게 됐죠. 그렇게 조합과 연결됐고, 단오제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단오제는 백양산 아래 여러 마을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백양마을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고, 현재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___ 백양마을 단오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올해가 22회째예요. 20여 년 전, 마을공동체들이 함께 연대하는 문화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예전 농촌의 단오제가 모내기 피로를 풀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다면, 백양마을 단오제는 도시 속에서 주민 간 유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___ 단오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제례를 비롯해 체험, 공연, 전시, 식사 등을 해요. 행사 내용은 회의를 통해 정하고, 준비는 품앗이로 진행해요. 각 공동체가 재료를 가져와 200인분의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 먹은 적도 있는데, 그마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을의 학교와 동아리들도 공연과 전시에

참여합니다. 부산진구의 마을제 지원 조례에 따라 약 70만원 정도를 지원받지만, 상차림 비용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의 마음과 손길로 채워집니다. 백양마을 단오제는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마을의 ‘자생’ 주민공동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동 정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___ 단오제를 이어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백양가족공원에서 단오제를 열어왔는데, ‘15분 도시’ 사업으로 공원이 정비되면서 나무 그늘이 사라졌어요. 단오날은 음력 5월 5일인데, 초여름 땀벌 아래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품앗이로 운영하다 보니 천막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듣더라도, 행정에서는 핵심을 놓칩니다. 공간의 형태뿐 아니라 마을의 역사성과 지역성도 함께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___ 앞으로 단오제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지금처럼 마을 사람들 누구나 편하게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나은 조건만 기다리면 사람들은 떠나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___ 개인적으로 단오제를 계속 이어가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마을에서 추억을 만들고 친구를 만드는 것이 곧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이나 연금으로 미래를 준비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마을공동체 안에서 단오제를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민주공원과 더 가까이, 더 자주

유한별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시민·회원사업

따스한 봄기운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요즘, 민주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층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품은 민주공원은 봄철 겹벚꽃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를 띠니다. 시민홍보팀에서는 이러한 계절의 분위기에 맞추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4월 중순 겹벚꽃 개화 시기와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제39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부산시민한마당 행사에서 민주공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주공원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 사·공·연·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소식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부스는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공원의 다채로운 소식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장에서는 SNS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겹벚꽃 철에는 벚꽃 머리핀을, 어린이 날에는 병아리 머리핀과 하트 머리핀을 증정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제39주년 6월민주항쟁을 맞아 6월 항쟁 당시의 선언문을 직접 손으로 다시 써보는 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전했습니다.



이번 홍보부스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으며, 현장 곳곳은 민주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웃음과 관심으로 더욱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민주공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날의 외침을 오늘의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당신입니다!

민주화운동 정신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나침반입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그날의 불꽃을 역사 교육으로, 시민의 연대로,
지역의 문화로 지금 이곳에서 다시 피워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잇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후원, 함께해주세요.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사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대와 교류 사업



민주주의 역사자료의
수집·보존 및 연구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확산



모두에게 열린
민주공원 운영



어린이·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회원가입

051-750-3807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

4월 11일(토), 민주공원 큰방에서 탄핵 선고 1년을 맞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이 열렸으며,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은, 탄핵 재판 과정을 통해 바라본 민주주의의 의미와 속의와 공론의 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문형배 전 재판관은 민주공원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권자 의식과 공무원의 봉사자 정신으로 완성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위원식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



4월 14일(화),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에서는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범시민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하여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위원식 국회의장은 민주공원 넋기림마당을 찾아 민주열사를 기리며 참배했습니다. 우 의장은 참배 후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헌법에 새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 활동소식 바로가기

더 많은 소식과 일정 확인은 뉴스레터 '마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5월 5일(화) 어린이날, 2,5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장승터에서는 민주공원 부채 꾸미기와 솔방울 놀이가, 뽕기름마당에서는 평화활동가 테스트와 바람개비 만들기, 평화 책방, 전통놀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가리사리마당에서는 ‘오월애 주먹밥 나누기’를 비롯해 페이스페인팅, 모자 꾸미기,

디폴블록 팽이, 압화 책갈피, 점자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바깥놀이마당에서는 인형극 ‘호랑이 생일잔치’가, 작은방에서는 평화 영화 상영이 진행됐습니다. 민주항쟁기념관 2층에는 재활용 놀이터와 도미노 세상 등 자유 놀이 공간이 마련됐고, 큰방에서는 전통연화와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댄스가 어우러진 <춤까자랑>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폐막공연으로는 저글링과 서커스를 결합한 마술 <뽀얀판쇼>가 열려 온 가족의 웃음 속에 민주공원 놀이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포피스와 부산어린이어깨동무가 함께했으며, BNK부산은행,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참석

5월 11일(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이사장과 이희길 부이사장,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오늘의 빛이 되다’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형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의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원으로 재조명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는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이후 대통령이 발표한 첫 기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 민주공원 방문

5월 15일(금), 도쿄노동자학습협회 회원 15명이 민주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협회는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일본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학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춰 광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부산을 먼저 찾아 민주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일행은 4·19광장에서부터 민주공원 곳곳을 둘러보며 부산의 민주항쟁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특히 장승터에 있는 원폭 피해자 2세이자 인권운동가인 고(故) 김형률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기념나무와 기념비 앞에 오래 머물며 그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민주알림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식

함께 배우는 시민연대 투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가 함께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2026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역과 사회의 연대 활성화로 시민 중심의 생태·자차·평화·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기조로 ▲국가균형발전 실현·부산시정 및 의정 감시 견제사업, ▲시민의 삶이 안전한 도시 구현 사업, ▲부산지역 난개발 대응 지속 사업,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민주주의 가치 회복 및 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함께 배우는 시민연대 투어'를 진행합니다.

활동가들은 각 단체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스탬프를 모은 활동가에게는 내년 신년하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시민연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경실련

- ✓ 부산시민 100명 시정감시단(11월)

부산민예총

- ✓ 2026 남북협력기원예술제 (8월 28일)
- ✓ 2026 제7회 영호남민족예술대동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 저널리즘 실천하는 지역언론인과 만남 (7월)
- ✓ 시민미디어특강(9월)
- ✓ 찾아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하반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 제35회 민주시상 시상식 (10월 16일 예정)

부산생명의전화

- ✓ 2026 생명사랑길 걷기 캠페인 '길 위에서 만나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 2026 생명존중 영상콘텐츠 공모전 (하반기)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인권캠프 '소통과 공감' (10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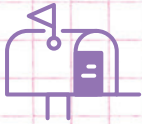
- ✓ 기후정의행진(9월 중)

부산YMCA

- ✓ 부산YMCA와 함께하는 마라톤 (10월 24일, 북항친수공원)
- ✓ 청년정책포럼(12월)

부산YWCA

- ✓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10월 22일 오후 3시, 부전교회)
- ✓ 부산YWCA 후원 음악회 (11월 5일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6 부마문화제 : 부마의 별

우리 곁의 가장 밝은 별, 1979년의 용기를 기억하시나요?! 역사책 속의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민주주의를 만든 뜨거웠던 10월의 기록.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부마민주항쟁이 2026년,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2026 부마문화제: 부마의 별]은 잊혀가는 역사를 다시 꺼내어 우리 안의 '별'로 띄우고, 학생부터 시민까지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전국투어 토크콘서트입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7. 11.(토) 전일빌딩245

강연: 큰별쌤 최태성 | 공연: 빅보스 마칭밴드

제주

8. 29.(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연: 큰별쌤 최태성 | 공연: 웬즈데이 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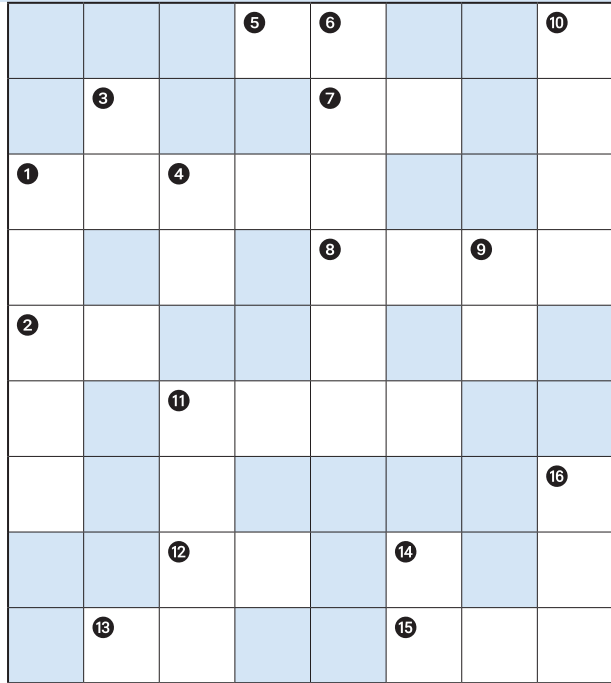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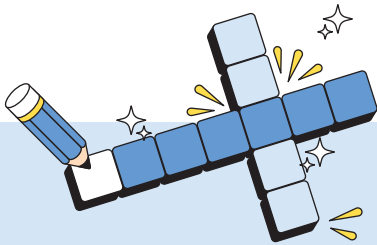


제7회 부마항쟁문학상 공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우리의 현재적 자산으로 기억하고 항쟁의 동력이 되었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문학으로 표현하는 제7회 부마항쟁문학상 공모가 시작됩니다. 사·소설·아동청소년문학·기록문학 및 신인문학상 부문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한 달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하며 응모 요강 및 시상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숙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뜨거운 역사를 문학으로 다시 한번 되새길 이번 공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이번 181호 소식지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십자말풀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풀 뒤 사진을 찍어, 181호를 읽은 소감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8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10명에게 **소정의 상품권(1만 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 ① 30년 된 ○○○○○법 제정운동 이제는 끝내자!
- ②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로 투표 불성립된 헌법개정안
- ⑤ 1987년 여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개밥’이라고 부를 만큼 열악한 식사와 노동환경에 ○○해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 ⑦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농민혁명’ 132주년
- ⑧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잔혹하게 고문당했던 남영동 ○○○은 건물 곳곳에 웅이처럼 박혀 있는 아픈 시간과 기억을 넘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2025년 개관했다.
- ⑪ 민주○○○○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발간한 자료집「잔업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⑫ 우리모두 ○○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뭉치면 ○○되고 흩어지면 그 모양 그 꼴
- ⑬ 탄핵 선고 1년을 맞아 열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 ‘탄핵○○으로 본 민주주의’
- ⑮ “민주주의는 시민의 ○○○ 의식과 공무원의 봉사자 정신으로 완성된다.”

세로

- ① 2026 민주화운동 주제전시 ○○○○○ 열전 <정하수>
- ③ 1979년 결성된 ‘현실과 발언’과 ○○의 ‘○○자유미술인협회’ 등의 활동은 이후 민중미술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④ 수학여행 및 여름휴가 ○○으로 실시하라!
- ⑥ ○○○○○○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일터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요구한 노동자들의 거대한 각성이자, 한국 사회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 ⑨ ○○과 대립의 시대, 우리 민주시민은 더욱 연대합시다!
- ⑩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 ○○○○ 되도록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려 했다.
- ⑪ 계엄 요건 강화,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의 내용을 담은 ○○○○안
- ⑭ 오월에서 유월로 이어지는 민주항쟁 부산기념행사 슬로건은 ○○○적 기반 없이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 ⑮ 민주야! 自主 자주 ○○○

소식지를 읽고

92부경총련(건) 대의원총회 자료집, 신용길 선생님, 그리고 허태준 작가가 민주공원 자원활동가였던 사실 등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자료와 사람들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_ 박○호

지난 호에 실린 ‘신용길 선생’ 글을 읽고, 신용길 선생이 참교육을 위해 기존의 교육 틀을 벗어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다 학교에서 해직되고, 옥중에서 단식과 투쟁을 이어가다 암으로 순직했으며, 안구까지 기증한 진정한 참교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_ 우○렬

함께 읽어요

안녕하세요, 소식지를 맡고 있는 시민홍보팀 이보람입니다. 지난 호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을 함께 읽어보자고 하였는데요.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마음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읽어보자!”고 했으니, 저는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번 톺아볼 수 있었습니다. 탄핵 선고 1년을 맞아 진행된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 강연에서도 이 책이 잠시 언급되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이었던 작가는 지난 6월 13일 민주공원 큰방에서 ‘소통과 기록이 만나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글쓰기와 말하기 모두 자동완성 기능과 ChatGPT 같은 AI 프로그램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인터넷상 우리말 파괴 심각”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기에, 여전히 나잇값(ㅎㅎ)을 하지 못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말하기 성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함께 책을 읽으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051-750-3809로 7월 30일까지 연락 주세요.



지난 호 정답 및 정답자

권○림 김○규 김○영 김○진 문○빈
박○희 박○호 우○렬 이○아 정○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호 정답은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톡 공식채널로

민주공원 소식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소식지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카카오톡 공식채널



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2026
민주공원
6월민주항쟁
기념 전시
청년작가
공모전

김유경
／
나나와
펠릭스
／
박정원
／
장우석

2026.6.9. / 8.2.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박물관

과로노 마초지 아고 모세이에 세론서다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점근철쳐보입방

문의 051-790-7482



기증·기탁 안내



카카오톡 문의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기록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민주세상을 밝힌 바로 그 흔적들!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기록이 되도록 기증해 주세요.

기증·기탁 문의 : 학술사료팀 051-750-3805 | tami@demopark.or.kr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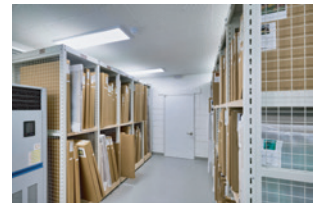
보존처리실

기록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보존처리를 하는 공간



보존서고

방충·방재·항온항습 등의
보존 환경을 갖추어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공간



수장고

미술품, 박물 등을
보존·관리하는 공간



유인물, 대자보, 자료집, 사진, 영상, 음성, 깃발, 응원봉, 각종 소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기증·기탁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받은 자료는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보존되며,
민주시민교육과 학술연구 활동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9 772765 298008
ISSN 2765-298X

민주공원 4890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 051-790-7400
민주주의기록관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61 ☎ 051-750-3800